

출마자의 변

안녕하십니까?

바르게 걷는 하나의 길, 선거캠프 '한길'의 정후보 강대희, 부후보 윤현지입니다.

정후보와 부후보는 모두 올해 3대 새내기학생회 '새록'의 문화복지부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세 번의 시험기간 간식사업, 사과데이 편지 전달 행사 등 다수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정후보는 경영학부 학생회 '내일'의 부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우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신입생 모두가 기초과정부로 입학하는 UNIST의 특성상 신입생 학우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새내기학생회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과 역사가 길지 않기에 많은 도전과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캠프 '한길'은 새내기학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선거캠프 '한길'은 신입생들이 UNIST에서의 첫 발걸음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은 입학할 때 하나의 반에 소속됩니다. 그러므로 '한길'은 새내기학생회 자치기구인 새내기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반 학생회'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각 반의 유지 및 단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입생들이 같은 반, 동아리 사람들 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다 활발한 학생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거캠프 '한길'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올해 새내기학생회의 반대표자 및 멘토 선발 당시 회칙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한길'은 회칙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금 더 실제에 기반한 용어로 정의하여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칙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대의원을 포함한 신입생 학우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대의기구의 의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선거캠프 '한길'은 신입생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행사를 기획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산시켜 수적으로 더 많은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행한 행사에 대한 피드백제를 시행하고 새내기 게시판에 건의함을 개설함으로써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생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바르게 걷는 하나의 길, 선거캠프 '한길'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더 많은 것을 시도하여 신입생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한 새내기 학생사회를 정립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 핵심 선거 공약

§ 학사

1. Pre-UNISTAR(신입생 입학 전 프로그램) 개선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 이수하는 Pre-UNISTAR의 취지는 학생들이 입학 전, 대학 교육 과정을 수학할 때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에 맞추어 차년도 신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해 2021 학년도 Pre-UNISTAR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튜터링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새내기 스터디 지원

UNIST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빠른 진도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현재 새내기 지원센터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튜터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점제한이나 인원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내기 지원센터와 새내기학생회가 협력하여 튜터링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튜터링 프로그램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스터디 그룹을 신청 받아 구성함으로써 신입생들의 학업부담 감소와 단합을 이룩해내도록 할 것입니다.

3. Freshmen Night 운영 방법 개선

신입생들이 Freshmen Night(신입생들과 지도교수님들이 함께 만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입생들이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전공에 대한 고민 등을 함께 나누는 행사인 만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 재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신입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UNI-VISION 강화

기초과정부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전공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과의 설명을 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유니비전은 새내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신입생이 행사에 참여해야 행사의 취지가 크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의 취지에 맞추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각 학부 학생회와 연합하여 각 부스를 돌아다닐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 그에 따른 상품을 새내기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지급하는 등 행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 소통

1. 찾아가는 새내기학생회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된 새내기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저희의 귀를 통해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새내기학생회 사업을 시행해 새내기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학우분들을 찾아가 직접 전해 들으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더 개선된 학생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 각 행사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새내기학생회는 역사가 짧은 학생회인 만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신입생들의 행사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행사를 마친 후 신입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시행하고 신입생들이 제시한 피드백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들을 정리하여 후대 새내기학생회가 한걸음 앞에서 출발할 수 있고 전대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월말 카드뉴스 게시를 통해 업무보고와 업무계획 공시

학교에 입학한 후 몇 달이 지나도 새내기 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고, 새내기학생회 내부에서도 월 별 업무보고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월 말이 되면 해당 월에 시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와 차월 업무 계획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이 카드뉴스를 새내기 게시판에 통해 게재하여 모든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내기 게시판에 건의함을 부착하여 학생들의 소리를 귀담아들겠습니다.

§ 문화 및 복지

1. 각 반학생회 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진행

새내기학생회는 각 반의 친목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까지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육대회에 대한 수요조사를 일전에 실시하고 반학생회 별 팀을 구성하여 3vs3 농구, 혼성 피구, 소규모 축구 등의 종목 중 두 가지를 정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반내부와 서로 다른 반과의 친목 도모를 동시에 장려할 것입니다.

2. 시험기간 응원 행사&성년의 날 축하 행사

시험기간 신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학기 중 두 번(중간고사,

기말고사)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시행 방법보다 '응원'을 하고자 함을 강조하여 신입생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응원하는 행사로 기획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20 살이 되어 성년을 맞이하는 신입생들인 만큼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됨을 느낄 수 있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타

1. 회칙 및 대표자 선발 방식 재정비

이번 3대 새내기학생회의 멘토 및 대표자 선발 당시, 실제와 괴리감이 있는 회칙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함을 보았습니다. 이에, 새내기학생회 자치기구인 '반학생회'의 연속성을 지키는 대표자 선발 방식을 고안해 내겠습니다. 또한, 용어의 혼동이 없도록 회칙을 개정해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